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설 민심 잡아라” 더민주·국민의당 총력전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광주행...5·18 묘지 참배 공정성장 토론회도...공직후보심사위원장에 전윤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에 홍창선...체제 정비 속도

국민의당은 4일 정당 이후 처음으로 야권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텃밭 바람을 일으켰다. 창당을 계기로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세를 넓히기 위해 당의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5·18 구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다. 이어 두 공동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천정배 정하성의 경제토크 콘서트- 위기의 대한민국,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다’ 행사에 참석했다.

안 대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석은 과반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며 “샌더스 후보의 주먹 권 사진을 보고 참 우연이다 싶었다. 저도 대표 수락연설 때 주먹을 쥐고 싸우겠다고 여러 번 외쳤다”며 주먹 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천정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남 개혁 공천과 관련, “공천방식은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광주시민, 호남민 의사를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내가)전략공천 신봉자는 아니지만 조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철 홍창선

국민의당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위원장을 선임했다.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경선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다. 전 위원장은 김대중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중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책과 외부인사 영입 등에서 ‘문

재인 색채’ 희석하며 당의 이미지 변화와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이어받으려던 당 모습과의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친노(친노무현) 중 친노가 문 전 대표에 호의적인 반면 호남은 냉랭한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문재인 체제에 대해 ‘불가근 불가원’의 기조 속에 새 지도부 출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4일 4·13 총선의 지역구 후보보건을 담당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홍창선(72)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 홍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계 대표 인사로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적극 유도

광주시 지역업무 공동도급·하도급 권장 조례 공포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과 재정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기간·공종별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공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용역과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제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도 오는 3월1일 개정 공포된다.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재와 장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재 사용률을 현행 60%에서 65%로, 장비 사용률을 90%에서 97%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3월 중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밸리 조성 관련 조례를 개정, “지역생산 우수제품 우선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3월 안으로 SOC 등 계속사업의 조기발주 및 계약을 마치고, 올해 신규 사업도 실시계획 및 발주 절차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체 대상사업 3조613억원 중 68.2%인 2조88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장정책자문관 이권 개입 의혹에 막말까지”

주경남 광주시의원 주장 “강력한 법적 조치해야”

광주시가 민간 전문가의 경륜을 시정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자문관 이권 개입 의혹,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경남 광주시의원 의원은 4일 광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 공직자들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전 경제정책자문관 A씨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금융권에서 파견된 A씨는 300억원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더욱이 A씨는 자신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시 공무원들에게 ‘잘라 버리겠다’는 막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

장했다.

그는 “A씨는 시 감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감사장에 나와서도 조사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비이성적 행위를 담당 조사관에게 했다”며 “시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A씨는 보안 서류인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시의 협상 관련 자료를 동의없이 가져갔다가 하루 뒤 돌려주기도 했다”며 “금융기관 소속이지만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무 조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는 준하는 고별조치를 하라”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롯데마트 “월드컵점 재임대 문제 없다”...광주시 강경대응 하나

롯데측 “불법 전대 아닌 영업형태 변경”...市 “시정 의지 의문”

롯데마트가 4일 광주 월드컵점 매장 불법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 “불법이 아니며 단순한 영업형태 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광주시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 재임대 원상회복과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원 등을 촉구한 광주시의 주문을 사실상 부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월드컵점의 전대 면적 증가(3901㎡)는 기존 특약거래 매장으로 운영했던 업체 보호를 위해 서류상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단순한 영업 형태 변경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롯데마트 측에 허가한 전대면적은 9289㎡이다. 롯데 측은 전대면적 초과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또 “2014년 임대 면적 증가(1500㎡)는 양관점인 하이마트 인수 뒤 기존 직영매장을 하이마트로 임대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전대면적이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가 부당수익으로 판단한 유상면적 내 전대 수익에 대해 롯데 측은 “해당 면적에서 발생한 총 수익 중 관리비, 전대 면적 대부분

등 합리적 비용 산출 근거를 고려해 수익 규모 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롯데마트가 위반행위 시정 및 개선 계획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비상시적이라고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5일 롯데마트측의 회신내용을 제출받아 위반행위 시정 및 개선 계획이 관련 법규와 원칙, 시민의 눈높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강

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2007년부터 대부계약을 한 광주월드컵점이 무단전대와 초과 전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롯데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고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한 면적(9289㎡)을 3901㎡ 초과한 1만 3190㎡를 전대,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남 11개 지역 선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세뫼마을사업)’에 전남도내 11개 지역이 선정됐다.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으로, 선정 지역에는 3~4년간 국비 224억원 포함 315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지역은 ▲목포시(동명동) ▲여수시(총무동) ▲장성군(장성읍 삼가마을) ▲광양시(광양읍 무선마을) ▲곡성군(임면 만수마을) ▲구례군(간전면 야동마을) ▲보성군(별교읍 마동마을) ▲장흥군(장평면 두봉마을) ▲해남군(현산면 향교마을) ▲함평군(해보면 운

암·광동마을) ▲완도군(노화읍 염동·대당마을) 등 도시지역 3개소와 농어촌지역 8개소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자문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해왔다.

/윤현식기자 chadol@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대: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